



1 제24회 함평 나비대축제 2, 3 함평 엑스포공원 야간경관 조명 및 나비 분수

“생태체험·문화 넘실대는 ‘함평 나비대축제’로 놀러오세요”

3년 만에 재개...5월 8일까지 엑스포공원·읍 시가지 일원서

전남 지역의 대표 봄 축제인 '제24회 함평나비대축제'가 3년 만에 관람객을 맞았다.

지난 4월 29일 개막한 축제는 '함평나비! 희망의 날개를 펴다'를 주제로 5월 8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과 함평읍 시가지 일원에서 열린다.

군의 상징 나비인 호랑나비를 비롯해 23종 22만 마리 나비와 각종 관련 공연 및 체험행사들까지 다채롭게 구성해 관람객의 오감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나비 놀이터, 소원 터널, 수생식물관 등 신규 프로그램과 어린이날 각종 이벤트는 물론 가족과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 사랑앵무새 먹이 주기, 야외 나비 날리기 등을 선보였다.

함평나비 미디어 파사드, 꽃과 정원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도 다채롭다.

군은 이번 축제를 '나비=함평', '함평=청정=친환경'이라는 지역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특산물 판매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행사로 기획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으로 축제를 병행해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안전·안심 축제'를 지향한다.

엑스포공원 중앙광장 일원에는 나비 놀이터, 나비 곤충 체험 행사가, 잔디광장에서 나비관찰 공간을 운영 중이다. 또 투어 기차를 배치해 함평읍 시가지와 연계해 이동을 돕는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나비·황소주차장 일대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읍 시가지와 축제장 연계 프로그램을 상시 가동 중이다.

꽃과 나비로 가득 찬 축제장은 밤이 되면 아름다운 야간경관 조명으로 눈부시게 빛난다. 엑스포공원 일원에 꽃과 함께 장식된 야간경관 조명이 더해져, 형형색색 빛으로 수 놓인 색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또 저녁 시간 이후 가족, 친구, 연인과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함평 자동차 극장'도 축제 행사장 인근에 준비했다. 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에 지난 1월 개장한 이래 2개 상영관(나비관·황금박쥐관)을 운영 중이다. 매주 신작을 개봉하며, 비대면 문화 명소로 인근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군 관계자는 "3년 만에 손님맛이를 나서는 함평나비대축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 회복이 성큼 다가온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여러분 모두 함평에 오셔서 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제 24회

함평 나비대축제

The 24th
Hampyeong
Butterfly Festival

함평나비! 희망의 날개를 펴다
(부제: 다시 만나는 나비 세상)

2022. 4. 29. |금 ▶ 5. 8. |일
함평엑스포공원 및 함평읍시가지 제2무대 일원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축제관광재단